

## 마르코 복음서 9장

- 1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하느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.”

‘권능’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이다.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, 하느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. 이는 종말이 빨리 오리라고 기대하고 있던 초대교회의 생각이 반영된 표현이다.<sup>1)</sup>

###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다(마태 17,1-9; 루카 9,28-36)

- 2 옛새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.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.

“옛새 뒤에”라는 말은 복음서에서 단순히 어떤 시간의 흐름을 말하기보다, 흥겨운 대중 축제인 초막절 기간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다. 이 축제는 속죄의 날 옛새 뒤에 시작하여 이레 동안 계속된다. 따라서 마르코 복음서에서는 “옛새 뒤”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지내신 축제의 첫날이거나, 모두 흥겹게 즐기는 축제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.<sup>2)</sup>

- 3 그분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이라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.
- 4 그때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.
- 5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. “스승님,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, 하나는 모세께,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.”
- 6 사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. 제자들이 모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이다.
- 7 그때에 구름이 일어 그들을 덮더니 그 구름 속에서, “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.” 하는 소리가 났다.
- 8 그 순간 그들이 둘러보자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그들 곁에 계셨다.
- 9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,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

1) 주석 성경, 마르코 복음서, 89쪽, 각주 2-3 참조.

2) 주석 성경, 마르코 복음서, 89쪽, 각주 6 참조.

운데에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,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.

- 10 그들은 이 말씀을 지켰다. 그러나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저희끼리 서로 물어보았다.

마태오 복음서 17,1-9 해설 참조.

#### 엘리야의 재림(마태 17,10-13)

- 11 제자들이 예수님께 “율법 학자들은 어쩌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합니까?” 하고 물었다.
- 12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“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는다.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으리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느냐?
- 13 사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, 엘리야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가 이미 왔지만 사람들은 그를 제멋대로 다루었다.”

마태오 복음서 17,10-13 해설 참조.

#### 어떤 아이에게서 더러운 영을 내쫓으시다(마태 17,14-20; 루카 9,37-43)

- 14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보니, 그 제자들이 군중에게 둘러싸여 율법 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.
- 15 마침 군중이 모두 예수님을 보고는 몹시 놀라며 달려와 인사하였다.
- 1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“저들과 무슨 논쟁을 하느냐?” 하고 물으시자,
- 17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. “스승님, 병어리 영이 들린 제 아들을 스승님께 데리고 왔습니다.
- 18 어디에서건 그 영이 아이를 사로잡기만 하면 거꾸러뜨립니다.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몸이 뻗뻗해집니다. 그래서 스승님의 제자들에게 저 영을 쫓아내 달라고 하였지만,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.”
- 19 그러자 예수님께서, “아, 믿음이 없는 세대야! 내가 언제까지 너희 곁에 있어야 하느냐?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한다는 말이나?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.” 하고 그들에게 이르셨다.
- 20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. 그 영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아이를 뒤흔들어 댔다.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흘리며 텅굴었다.
- 21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, “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?” 하고 물으시자 그가 대답하였다. “어릴 적부터입니다.

- 22 저 영이 자주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으로도, 물속으로도 내던졌습니다. 이제 하실 수 있으면 저희를 가없이 여겨 도와주십시오.”
- 23 예수님께서 그에게 “‘하실 수 있으면’이 무슨 말이나? 믿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.” 하고 말씀하시자,
- 24 아이 아버지가 곧바로, “저는 믿습니다. 믿음이 없는 저를 도와주십시오.” 하고 외쳤다.
- 25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이 떼를 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영을 꾸짖으며 말씀하셨다. “병어리, 귀머거리 영아,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.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.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.”
- 26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고 나가니,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었다.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“아이가 죽었구나.” 하였다.
- 27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다.
- 28 그 뒤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분께 따로, “어째서 저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?” 하고 물었다.
- 29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. “그러한 것은 기도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나가게 할 수 없다.”

- 1)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다.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지만,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한다. 믿음이 강하고 클수록 더 많이 기도하게 된다.
- 2) 마태오 복음서 해설 17,14-20 해설 참조.

#### 수난과 부활을 두 번째로 예고하시다(마태 17,22-23; 루카 9,43L-45)

- 30 그들이 그곳을 떠나 갈릴래아를 가로질러 갔는데, 예수님께서서는 누구에게도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.
- 31 그분께서 “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그들 손에 죽을 것이다. 그러나 그는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.” 하시면서,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이다.
- 32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.

- 1)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기에 두려운 것이다.
- 2) 마태오 복음서 해설 17,22-23 해설 참조.

#### 가장 큰 사람(마태 18,1-5; 루카 9,46-48)

- 33 그들은 카파르나움에 이르렀다. 예수님께서서는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, “너

희는 길에서 무슨 일로 논쟁하였느냐?” 하고 물으셨다.

- 34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.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길에서 논쟁하였기 때문이다.
- 35 예수님께서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열두 제자를 불러 말씀하셨다. “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, 모든 이의 꼴찌가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어야 한다.”
- 36 그러고 나서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에 세우신 다음, 그를 껴안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다.
- 37 “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.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다.”

마태오 복음서 18,1-5 해설 참조.

**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지지하는 사람이다**(루카 9,49-50)

- 38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. “스승님,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.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,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 하게 막아 보려고 하였습니다.”<sup>3)</sup>
- 39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. “막지 마라.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,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.”<sup>4)</sup>
- 40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.
- 4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.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,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.”

- 1)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의 편협한 생각을 나무라신다.
- 2) 제자들을 반대하지 않는 자들의 모든 행위를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면서 공공연히 반대하지 않는 자는, 비록 다른 점들에 있어서 잘못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,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편이라는 뜻이다.
- 3)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다면,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.

---

3) 민수 11,28 : 그러자 젊을 때부터 모세의 시종으로 일해 온,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였다. “저의 주인이신 모세님, 그들을 말리셔야 합니다.”

4) 1코린 12,3 :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일러드립니다. 하느님의 영에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“예수는 저주를 받아라.” 할 수 없고,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“예수님은 주님이시다.” 할 수 없습니다.

**죄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쳐라**(마태 18,6-9; 루카 17,1-2)

42 “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,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.

43 네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.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,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,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.

44 .

45 네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버려라.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,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.

46 .

47 또 네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 던져 버려라.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,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.

48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.”

1) “지옥”과 “하느님 나라” 곧 천국은 부활 후의 상태이다. 천국인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상태이다.<sup>5)</sup> 반면 지옥은 하느님과 함께 하지 않는 하느님 부재(不在)의 상태이다.

2) 마태오 복음서 18,6-9 해설 참조.

---

5) 요한 3,16 :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,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.